

‘자동차 메카’ 광주시… 친환경·자율 등 미래차 시대 선도

부품개발·인증·실증·생산 등
내년까지 총 3030억원 투입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179종 첨단 기술개발장비 구축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도 들어서

국내 자동차 생산능력 2위를 자랑하는 자동차 메카 광주가 친환경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도 선제적 대응으로 미래형 자동차시대를 앞장서 열어나가고 있다.

기아차 공장에 이어 현대캐스퍼까지 국내 최초로 두개 이상의 완성차 생산 기업을 보유한 도시가 된 데 이어 친환경 자율주행차까지 이끌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자동차 선도도시로 우뚝설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시는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친환경차부품인증센터 조성, 무인 자율주행 비대면서비스 실용화, 무인 저속특장차 규제자유



무인자율주행차.

특구,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완공과 양산 등 친환경 자율주행차의 부품 개발, 인증, 실증, 생산에 이르는 일괄시스템 구축을 서두르며 관련 기반을 탄탄히 다져가고 있다.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는 지역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와 연관된 전장부품 기술 등을 융합 발전시키는 자동차 부품산업 구조고도화를 목적으로 2022년까지 총 3030억원을 투입해 빛그린산단

에 구축 중이다.

179종의 첨단 기술개발장비를 구축, 부품기업 수요에 맞춰 친환경·스마트 부품개발을 지원하고, 미래차 기술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선도기술지원센터와 창업보육, 사업 다각화, 해외 마케팅, 인력양성 지원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선다.

빛그린산단에 구축 중인 전국 유일의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도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급증하는 친환경 인증수요와 사후관리에 대응하고, 안전 인증과 평가를 담당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설립되는 친환경차 부품 인증 국가기관이다. 26종의 첨단 인증·평가 장비를 갖추고 있다.

첨단3지구내 인공지능산업융합집적단지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형 자율주행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가 구축된다. 탑승 상태로 다양한 실제 주행상황을 가상 구현하고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능을 개발·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첨단장비로, 2023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이와함께 2년 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무인 저속특장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평동산단을 중심으로 수완지구, 우치공원 등 7개 구역에서 운전자 없이 스스로 이동하는 무인특장차 실증과 상용화도 한창 진행중이다.

기업과 대학을 공간적으로 합쳐 연구

개발과 인력 양성, 고용이 선순환되는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도 광주빛그린산 학융합지구에서 추진되고 있다.

앞서 15일 양산에 들어간 GGM 공장도 당장은 내연 SUV경차를 생산하지만 세계 자동차 시장의 환경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필요할 경우 친환경 자율주행차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빛그린산단, 에너지밸리산단, 도첨 국가산단, 첨단3지구가 광주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연관기업과 부품업체 유치에 탄력을 받고 있고, 특히 빛그린산단은 미래형 자동차 산업지구로 지정돼 자동차 관련 기관과 업체의 집적화가 예상된다.

이용섭 시장은 “친환경 자율주행차 기반 조성이 마무리되면 광주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친환경 자율주행차 산업의 거점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보성군, 녹차라면 출시… 식품시장 공략

‘보성물’서 1박스 4만1400원 판매

보성군이 녹차라면을 출시하며 음료 시장을 넘어 식품시장을 공략한다. 코로나 19와 1인가구 증가로 가정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바로 마실 수 있는 RTD(ready to drink)와 간편식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보성 차생산자조합과 ㈜제이유통은 유기농 녹차 3%를 넣은 매콤하고 담백한 보성

녹차라면을 출시했다.

보성 녹차라면은 보성차생산자조합에서 생산된 유기농 찻잎을 녹차면에 넣어 증기로 찐 증숙면으로 면발이 오랜 시간 꼬들꼬들하고 국물 맛이 칼칼하고 담백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에 출시한 녹차라면은 보성군 온라인 쇼핑몰인 ‘보성물’에서 1박스 41,400원의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보성=문성환 기자 m8527188@



여수시가 7년 연속 해양관광도시 부문 브랜드 대상 수상했다.

여수시, 해양관광도시 대상 7년연속 수상

‘2021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전남 여수시가 ‘제15회 2021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7년 연속 해양관광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며, 대한민국 소비자에게 가장 신뢰받고 사랑받는 대표브랜드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여수시는 전국 243개 지자체 브랜드 중 1차 조사를 통해 63개 후보에 선정되었으며, 브랜드

에 대한 인지도, 선호도,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받아 해양관광도시 부문에 최종 선정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광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힐링여행, 온택트 랜선여행, 웹드라마를 활용한 홍보 등으로 여수관광에 대한 지속적인 만족과 기대, 잠재 수요를 확보한 결과다. 시는 앞으로도 관광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의적절한 콘텐츠 개발과 관광 마케팅 전략으로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여수(전남)=김용학 기자

경북도 “부모님 위해 고향방문 자제를”

추석연휴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성묘객 사전예약, 거리두기 등 홍보

경북도가 방역 취약시기인 추석 연휴 동안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먼저 ‘방역 친화적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향·친지 방문 때 소규모로 안전한 고향 방문을 안내한다.

이를 위해 백신 접종완료 또는 진단 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 방문, 귀가 후 집에 머물며 증상 관찰 및 적극적 진단검사 받기 등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터미널, 전통시장, 대형마트, 관광지 등 다중이용 시설과 납골당, 공원묘지 등 봉안시설에 대해선 추석 연휴 전에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묘지 및 봉안시설은 성묘객 사전 예약, 성묘객 간 2m



경북도가 방역 취약시기인 추석 연휴 동안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이상 거리두기 등을 홍보하고 연휴 동안 현장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또 경상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비상방역 대책반을 운영해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자가 격리자를 특별 관리

하기로 했다. 확진자 발생에 대응하고 자 선별진료소도 상시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 및 당직의료기관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진단 검사와 치료로 철저한 방역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북=김귀열 기자 gold6830112@

광양시 ‘배알도 별 헤는 다리’ 공식 개통

길이 275m, 폭 3m 해상보도교
윤동주의 시 ‘별 헤는 밤’ 모티브

광양시가 ‘망덕포구 및 백두대간 중점 관광명소화사업’ 마지막 단계인 ‘배알도~망덕포구’ 간 해상보도교 1교 ‘배알도 별 헤는 다리’를 공식 개통한다.

시는 추석 연휴를 앞둔 16일 ‘배알도 별 헤는 다리’를 열고 시민은 물론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방문객들을 맞을 계획이다.

이번에 개통되는 ‘배알도 별 헤는 다리’는 길이 275m, 폭 3m 규모 현수교식 해상보도교로, 2019년 3월 13일 첫 삽을 뜬지 2년 6개월 만이다.

‘배알도 별 헤는 다리’는 공모를 통해 명명한 것으로 망덕포구 정병육 가옥에

서 보존된 윤동주의 시 ‘별 헤는 밤’을 모티브로 별빛 감성이 담겼다.

국내 최초 해상보도교로 경관 조망이 뛰어나고, 선박이 드나드는 데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부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광양 유일의 섬 배알도는 망덕포구와 배알도근린공원을 잇는 낭만 플랫폼으로 탄생하는 한편 섬, 포구, 수변을 모두 잇는 아름다운 해상 로드를 완성했다.

시는 브랜딩 강화를 위해 망덕포구, 배알도 섬 정원 등 섬진강권을 중심으로 가을 테마여행상품 운영, 언택트 걷기 행사, 버스킹, SNS 이벤트 등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광양=김용학 기자 jjacecom@

장성군, 농촌버스 운임 내년께 1000원으로 조정

빠르면 내년부터 장성 지역 농촌버스 운임이 1000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16일 장성군에 따르면, 농촌버스 이용 요금을 ‘1000원 단일요금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장성군 농촌버스의 기본 요금은 성인 1500원, 중·고생 1200원, 초등생 750원이다. 여기에 운행거리 10km를 초과하면 1km당 132원이 할증되거나, 장거리 이동 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거리·구간비례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장성군은 버스 이용객의 대다수가 노인, 학생, 농촌주민 등이라는 점에 착안해 ‘1000원 단일요금제’로 전환기로 하고, 최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성인은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생 500원으로 요금이 인하된다.

/장성=김태수 기자